教授人力需要推定의 接近方法

金信福*

I. 序：研究의 目的・方法
   1. 教授의 役割과 責任
   2. 教授需要의 概念과 關聯要因
   3. 教授 勤務負擔에 관한 理論
   4. 教授需要 算出의 接近方法
II. 教授人力의 實態及 定員基準

IV. 教授需要推定을 위한 模型
   1. 基本前提
   2. 接近方法과 變數選定
   3. 算出模型과 定員基準

V. 結 語

조약

우수한 資質을 갖춘 諸正數의 教授人力을 推定하고 勤務負擔의 正常化를 期する 일은 大學運營의 效率性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의 完整 높이고 中央에서 研究과 社會奉仕의 功能을 積極하는 데 重要用의 要件이 된다. 然而에도 불구하고 一般產業部門의 人力需要에 대해서는 多數의 研究가 이루어진 반면에 大學教授를 비롯한 專門職의 人力需要에 관해서는 研究가 未洽하였으며 現行 教授定員基準 亦是 經理적인 根據가 약하다.

教授의 人力管理에 있어 最優先의으로 推定해야 할 事項은 教授需要이름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學生數, 道行과 業務의 絕對規模, 大學 管理方式, 大學 與政的 財政形態을 들 수 있다. 教授需要算出의 接近方法에는 教授 對 學生比と 기준으로 하는 概括的 推定방식, 當然 開設되는 教授需要을 기준으로 하는 教育課程運營基準 방식, 教授들의 職務을 근거로 教授需要을 推定하는 職務分析方法이 있다.

 우리나라의 4年制 大學들은 教授要員 確保状況과 教授의 勤務負擔 等 實態分析 및 現行基準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검토를 통하여 教授定員基準 改善의 基本方向으로서, 教育課程을 기준으로 複合的 인需要를 고려하고 系列別 教授需要를 推定하여 大學院 教育 負擔을 반영하는 등의 基準을 新定하였 다. 이들 토대로 學生數와 適當受講時間数, 講座規模, 時間講師依存度, 専任 教授의 適當 擔當時間을 教授需要 算出의 주요 변수로 選定하였으며 이들을 구체적인 算出模型으로 종합하였다.>
I. 序：研究의 目的・方法

教育의 質을 높이는 데 가장 核心的인 要件 중에 하나는 適正数의 우수한
생 활을 확보하는 일이며 이는 大學教育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教育의
結果性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限 教員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지
만, 大學運営의 能率性을 고려하면 多多益善으로 教員수를 증가시킬 수만
은 없다. 人件費는 大學運営 지출에 있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一般產業部門에서 人力需要を 算出하기 위한 理論的 接近方法과 模型을
g기발하여 계산한 文獻과 研究들은 헛소리할 수 없이 많다. 또 政府의 각 専門
研究機関들에서 中・長期計劃 및 經濟預測의 일환으로 事業別, 事業種別 人力
需給 상황을 推定한 事例도 許多하다. 반면에 教授, 醫師, 經管士 등 이른
비 専門職의 需要推定은 業務의 標準化를 통한 需要算出根據의 設定이 어려
기 때문에 對 顧客(client) 比率 등 決定적・開放적 指標 提示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近期에 병원행정 및 大學行政은 그 規模이 大
型화되고 經営合理化의 必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重要한 研究分野로 등장하
고 있으며 人力需給의 設定하는 가장 중요한 研究課題 중에 하나이다. 特히
외국의 경우에 大學은 公・私立을 막론하고 視覺적인 財政運営이 보장되므
로 教職員의 適正 需要를 推定하는 일은 共通적인 關心事が 되고 있다. 異
리나라의 경우도 大學運営의 自律化와 함께 앞으로는 이 분野에 關心이 높
이질 것으로 期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研究는 大學教授需要를 推定하는 接近方法을 綜合的
으로 정리하고 現行 大學定員 基準의 失常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代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研究의 方法은 主로 文獻研究가 中心이 되었지만 그동안
筆者가 參与하여 수행한 關聯 研究結果들을 계인용하면서 實證現象을 分析
하는 방식을 행하게 될 것이다.
2. 理論的 背景

1. 敎授의 役割과 實務

大學教授의 役割은 大學의 目的과 機能에 의하여 設定된다. 大學의 使命은 일반적으로 知的 文化의 傳承과 發展, 國家社會의 指導的 人材 養成, 現實社會의 改善 等 세 가지로 要約되며, 그와 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敎授, 研究, 敎學指導, 社會奉仕 等의 機能을 擔當한다. 이러한 機能에 따라서 大學教授의 役割은 學問研究者 또는 學者로서의 役割, 學生指導者로서의 役割,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 등으로 集約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의 期待라고 하겠다.

그러나 敎授의 社會의 役割과 그에 대한 一般的的 期待는 時代의 變化에 따라 달라져 왔다.

學者로서의 傳統的의 敎授像은 象牙塔(ivory tower) 속에서 고매한 學問 생활이나 真実과 담을 섞고 연구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認識되었다. 이와 같은 認識은 敎授들이 비록 世俗의 影響와 거리가 먼 生活을 하면서도 真正한 저부심을 가지고 學問에 精進할 수 있도록 促進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社會가 급격하게 産業化됨에 따라서 象牙塔의 敎授像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産業化 過程에서 캠퍼스 안팎으로 나타난 變革의 報應은 學問의 關係性에 대한 構築과 報應을 報應하게 되었고, 따라서 實踐의 價值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Whitehead가 말한 바와 같이 該當 學問分野의 知識이 무기력한 地域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결국 敎授의 役割과 機能은 크게 네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즉 ① 學生들에게 專門的 知識과 技術을 传授하는 敎育者로서 ② 專門的 學術을 研究하는 學者로서 ③ 學生들의 人格形成에 관한 指導者로서 ④ 現實社會問題의 解決과 社會改造에 參與하는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이 그것이다.

按次第, 敎育者로서의 役割은 과거에는 뿔은 현재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機能이다. 敎授・學習活動을 통해 심오한 知識과 技術을 傳授시킴으
로써 문화의 전承과 촉진, 그리고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教授의 役割이 學習活動의 內容과 水準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授業의 計劃・實施・評価・結果의 피드백 등에 관한 意思決定의 주요이며 직접적인 대리자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資質과 役割이 곧 學習效果와 質을 決定하는 주요 變數가 되는 것이며, 다음으로 교수가 지닌 知識・情意의 特性들은 곧 學生과의 異同작용을 통해서 學習의 效果 내지 敎育의 效果로 연결된다.

두번째, 教授의 役割로 學術研究活動을 지적할 수 있다. 教授는 學生들에게는 知識과 技術을 가르치고 指導의 人格을 優養하는 과정에서 關聯研究를 基礎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國家 社會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참가하는 등 社會奉仕活動을 할 때 있어서도 専門의 學術研究를 토대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學術活動은 教授의 生活의 前提가 되는 中核活動이다. 이는 教授가 學問의 研究者 또는 學者로서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活動이라 하였다. 대체로 教授의 研究結論은 學生들의 講義는 물론 科學技術의 發展, 學術的 高度化, 政策樹立에 필요한 基礎資料의 提供 등 多様하게 活用된다. 또한, 教授의 能力を 評価하기 위한 實績審查用資料로서도 研究論文이 活用되고 있다. 즉, 教授의 任用이나 昇進을 決定할 때 重要한 資料로 反映된다.

세번째, 學生指導의 役割이다. 教授이 學生指導의 本質의으로 學者인 동시에 人格指導로서의 使命을 지니고 있다. 教授이 學生들에게知識과 기술을 授業시키는 設備이외에도 健全한 價値観・態度 및 指導의 人格을 優養시키는 任務이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學生指導指導는 教授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教授이 學生들의 多様한 問題과 必要 및 欲求 등을 不足되어 할 뿐 아니라, 社會的 秩序의 大學의 规律도 確立해야 하는 二重의 役割遂行에서 오는 모순과 갈등도 적지 않다.

네번째, 教授이 또한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을 行使해야 한다. 源頭이 別野의 個人에 따라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이기도 한다. 앞서 말한 教授로서의 役割 자체가 결국是 國家社會를 위한 未來의 役軍이다.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奉仕者로서的 役割의 一端을 이미 行使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教授이 보다 적절적으로 專門的 識見을 가진 資源人士로서 地域사
호나 국가사회의 당면課題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 바다된다. 이처럼 현실사회의 발전과 교육을 위하여 보다 직접적인 관심과 参与를 하는 社會奉仕活動은 오늘날 교수에게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로 소개되어도 있다. 그러나 參与방식에 따라 이 역할은 政治・社會의 問題을 학원내에 끌어들일 과정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真理를 探求하는 教授像을 취후시키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 教授 자신도 學生이나 주위로부터의 誤解를 의식하여 社會奉仕活動을 自制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實의으로 社會奉仕로서의 役割을 수행하는 教授가 많으며 이에 消費되는 時間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負擔이 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2. 敎授需要의 概念과 關聯要因

통상적으로 敎員이라 함은 法規에 의해서 策定된 한 機關이나 組織 또는 部署別 人員配置의 上限線(ceiling)을 말한다. 그러나 敎員의 本質은 組織의 目標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適正人力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人力管理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組織의 業務量과 業務의 성질에 비추어 適正한 規模의 人力을 確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國・公立이나 私立을 따름하고 大學(校)에 있어서 人件費는 至大한 비중을 져하고 있기 때문에 合理적인 人力管理는 豫算節約이나 運營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 必要적인 要件이 된다. 人力管理의 無形적인 目標은 量과 質의 兩 側面에서 適正人力을 확보하여 最大한의 能力を 발휘케 함으로써 人件費 및 附屬經費を 節減하고 業務量을 適正化・精準化함으로써 遊休人力을 제거하고 勤務意欲(士気)를 높이려는 것이다.

같서서 실현론 바와 같이大學教授의 機能과 役割은 점차 확대・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大學教育은 社會發展의 중요한 變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真理을 갖춘 適正數의 教授人力을 確保하고 業務量을 적절히 調節하는 것은 大學運營의 效率性을 확보함과 동시에 大學教育의 質을 높이고 나아가 社會發展에 기여하는 要因이 될 것이다.

教授의 人力管理에 있어서 核心이 되는 것은 먼저 機關別 또는 部署別로

소요되는 적정인력, 즉 정원을 계정하는 일이다. 정원만큼 교수를 확보하고
정원치에 비해 하여 유용 책임을 조정하는 일은 그 다음의 과제이며, 특히
교수명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세량이나 틈장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원계정
문제가 전제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校)에 있어서 교수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첫째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교육는 수교이다. 교수체계의 적정규모는 一般
의 수교 수교에 비례해서 증감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로, 교육을 적정해야 할 수업량이다. 이는 적정해야 할 수업의 절
대구요를 밝히며 개념상으로는 이를 1인당 수업량(Workload)으로 해야
수교 필요가 계산된다. 교수의 적정해야 할 수업량은 다양하며 따라서 수업
량도 복합의 인 요인이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교수들의 수업량 및 수업량을
결정하는 요인 내지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상세히 다루게 될 것
이다.

세제로, 관리(運營) 방식 역시 허약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校) 운영과정
에 걸리는 여러 가지 관리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컨대 확대의 개선 정도, 확대
의 수교의 편성, 시간과 비율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교육체계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네제로, 각 대학(校) 내지 정부의 재정 행정은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임과
동일에, 수입에也需要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수수는 환경에 적절한 영향을 미쳐
무로 재정 행정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된다. 따라서 재정 행정은 대학의 관
리(運營) 방식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수의 수업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때문이다.

3. 교수 수업하도에 관한 관리과 연구

3.1 학교의 수업체계에 관한 연구는 단적으로 표현해서 교수수요인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대학의 수요인 수업체계의 유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리 기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즉, 대학의 수요인 인적 수업체계를 위하
며, 교수들이 적정하고 있는 수업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대학수업체계의
경제적인 수요화와 수요의 수업발전을 동시에 기하고자 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

주요
는 것이다.

대학 교수의 遂行責務 策定의 適正化는 特히 지금까지 무질서하고 不均衡
상태에 놓여 있던 大學教授들의 責務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個個教授들의 責務의 適正化를 통하여 學科
単位 또는 大學全體 教授들의 責務를 適正化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個個教授들로 하여금 自身의 責務에 대한 认識을 提高하고 再認識시킴으로
서 全體의 인 大學教育의 質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利點은 大學의 所需必要(staffing needs)를 보다 科學的으로
推定함으로써 大學의 人力需給計劃을 效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데서 찾
이야 할 것이다. 또한 할정된 작업 算量 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教授들의 資金을 合理的으로 策定할 수 있는 작업한 準據를 제시함으로
서 大學財政의 效率적인 編成과 運營을 기한다는 점에서도 大學教授 遂行責務의
適正化 研究의 必要性은 매우 크다.

1973年 金蘭洙 等은 大學教員의 適正 業務負擔量 策定上の 한 가지 優劣
적 解決方案으로 “大學教員의 役割에 있어서 教育과 研究를 主要基準으로
하여 教育 2, 研究 2, 学生指導 1, 行政管理 1, 社會奉仕 1의 比率로 그 業務
負擔量을 算定하되, 全體負擔 限界量을 3으로 하여, 천이 중을 것이다.”라고 提
言하였다. 이러한 提案이 있은 후, 1975年 池應業은 教授務務를 時間으로
換算하여 教授마다 各自의 作業을 달리 策定한 百分率로 算出한 것을 述
び하였다. 3) 이에 池應業 1976年 西江大學校의 N.J. Tracy는 専任教員數의
基準設定은 各學科의 平均의인 學級規模를 基準로 한 各 學科의 週常 講義
時間數에 順이 하다고 보았다. 各 學科의 週常 講義時間數에 대한 専任教員
補助比率이 60% 以下일 때는 専任教員의 確保가 必要하다고 보
고 있다. 그는 毎學期端 基準되는 科目的 多樣性 및 學級規模에 대한 고려
를 주장하였다. 4) 1977年에는 延世大學校의 崔正薰, 李學柱가 大學 専任教員
의 業務負擔을 講義活動을 中心으로 할 때와 講義外 活動을 中心으로 할 때

2) 池應業, “實驗大學 效率化를 위한 Faculty Load에 관한 研究”, 「實驗大學 研究
3) Nóbért J. Tracy, “學科別 専任教員數の 基準設定에 관한 考察”, 「實驗大學研究
의 두가지로 나누어 大學教授 業務負擔 適正量的 推定方案을 提示하였다.
특히 이들은 専任教員의 擔當講義 水準別 負擔量 策定을 위한 試案을 創作
하니 推行하였다。51

이상의 先行研究들을 同合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金蘭洙 等은 우리나라 4
년제 大學教授 1,000명에 대한 業務負擔 情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基
準, 場所時間分」에 의한 遂行業務 策定方法을 제안하고 있다。即 講義, 相談・
指導, 論文指導, 研究開發, 行政業務, 諮問奉仕의 여섯 가지 業務을 同合하
서 各各 學際時間分으로 推算하여 14~15學際 時間分 수준으로 適正화시키
도록 提案하고 있는 것이다。60

美國의 경우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WICHE)
에서는 1970年代에 들어와서 大學教授 遂行業務에 관한 論理의 主要한 研
究報告書 支援하였다。1971年 L.C. Romney를 中心으로 教授活動分析 特別
委員會의 諸般活動 結果를 分析 提示하였으며 1973年 C.W. Manning 等이 教
授活動을 分析하고 그 資料를 活用하기 위한 研究들을 支援한 것이다。71

1971年 A.C. Lorents는 1924年 C.O. Davis의 研究以来 美國에서 遂行된
모든 研究들로서 나타난 大學教授의 遂行業務を 綜合하여 大體 일곱 가지로
分類하였다。 ① 教授(講義) ② 個別研究指導 ③ 研究 ④ 公共奉仕 ⑤ 学科
內 行政業務 ⑥ 學生支援業務 ⑦ 専門の 発展에 판계된 活動의 일곱 가지
이다。

그중, 1974年 H.F. Yuken은 教授의 遂行業務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8) 順著, 講義業務로서 여기에는 實際授業時間 뿐만 아니라
講義準備의 學生들에 대한 評価도 同含해야 한다。反則는, 學生과的 相互作

1) 金正碩・李德柱, 「大學教員 定員策定基準에 관한 研究」,「實驗大學研究報告書
2) 金蘭洙, 「韓國 大學教授 業務負擔的 適正化 研究」,「延世論叢」 제19집(1982),
pp. 93~127.
3) C.W. Manning and L.C. Romney, Faculty Activity Analysis: Procedures Ma
nual(Boulder, Colo: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1973);
C.W. Manning, Faculty Activity Analysis: Interpretation and Uses of Da
ta(Boulder, Colo.: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1974)
4) Harold F. Yuken, Faculty Workload, ERIC/Higher Education Report No.6
-23.
용 활동으로서 학생지도에 관련된 모든 업무이다. 그는 학생指導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세세한, 연구 및 작곡활동으로서 모든 학생의 생산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전문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활동으로서 각종 학술회, 참석, 연구, 기고활동 등이다. 학생들의, 학교 관리에 대한 총무로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활동, 학생업무(학장, 과장, 관리 등), 학생 활동(추천서 작성, 학교 방문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학교 정부로서 이는 학교 내에서의 정부 또는 전문활동을 포함한다. 결국으로, 이는 개인의 활동이다. 이는 전문적으로 전문 활동에 관련된 개인의 활동으로서, 예전에 학생들이 찾아와 만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현재 실제로 행하고 있는 업무를 요약하고 있다. 때, 대학마다 다르다는 점은 있으나, 앞에서 제시한 대학 행정업무의 영역을 크게 범위가 있다. 따라서 제시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에, 학문적, 보편적인 대학 교수들의 기본의이고, 필요한 업무의 영역은 대체로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부 및 대학원생의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한
2) 학생의 개인 및 그룹, 소규모, 구성
3) 수업 및 수업내 개발
4) 수업 및 수업내 개발
5) 수업 및 수업내 개발
6) 수업 및 수업내 개발

1. 교수 업무의 접근방법

1) 개략의 계산방법: 교수는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학생수를 학생 수로, 교수 수를 거시적인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2) 감사운전의 방식과 단순하여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개적으로, 지역별, 학문별로, 학교별로 비율을 면도로 분석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교수는, 학생의 수를 대학의 교육의 기관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략의 계산방법의 과학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율을
遍用하여 算出하는 경우가 많아 있다. 우리나라 國家 次元의 長期 教育計劃 樹
으로서 흔히 활용하는 方式처럼 先進外國의 事例들을 參照하면서 「教授 對
學生 比率」의 장래 目標을 設定하던, 教授需要的 畜積的 水準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教授需要 算出을 위한 概括的인 模型으로 使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教授 對 學生 比率 속에는 어리가지 變數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
에 學問系列別로 適正比率를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総講
義時間數, 教授當 講義當時間, 講座規模,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度 等 諸
變數들을 定義하지 않고서는 適正水準을 判斷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大學別, 系列別 教授 1人當 學生數의 推移와 現況에 관한 國内外 資料
들을 比較함으로써 向後의 改善目標를 設定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
지나 相對的인 比較일 뿐 실제 教育課程 運營에 필요한 正確한 教授需要를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試み 여러 가지 變因들을 勘案한 算出方式의
開発・適用이 요청되는 것이다.

2) 教育課程 運營基準方式

教育課程 運營의 側面에서 教授需要를 產生하기 위한 基本의인 接近方法
：『週間 開設지는 教授業時間에 비추어 専任教授가 몇 사람이 必要한지를
算出해 내는 方式이다.』 여기에는 腦修學點數와 開設講座數, 講義와 實驗間
의 比率, 教授의 週間 講義責任時間數, 講座規模 等的 變因이 考慮되어야
한다.

腦修時間數는 實驗大學體制下에서 専業에 必要한 學點이 140學點으로 規
定되어 있으나 週間 腦修時間數는 専攻系列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때의 資料는 各 大學(校)의 學科別 教科課程 및 實際 編成時間表를 分析하
단 比較的 正確하게 算出할 수 있을 것이다.

學部의 情況에는 規程上의 腦修時間數와 實際로 開設된 講座의 授業時間
数가 一致하지 않는다. 受講人員이 많아 分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다.
따라서 専業業時間數에는 分班에 따른 開設講座의 增加가 勘案되어야 한다.

 다음에 授業時間數에는 講義時間뿐 아니라 實驗時間도 包含된다. 보통 各
大學에서는 講義는 1時間에 1學點을 주는 反面에 實驗은 2時間에 1學點을
주고 있다. 그러나 藝體能系 學科나 醫學系 學科는 以上의 原則에 優의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필요를 추산할 때 있어서는 교수들의 교육
과업시간이 강의를 기준으로 정해되어 있기 때문에 학점수정방식을 적용하
능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교육법 시행령 108조에 의하면 대학 교수의
강의시간은 교육 9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내규로
의무 교육 10시간으로 정해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교수필요를 추산하
러면 교육개설과는 강의의 학점수정과 교수의 교육시간으로 정하여 추산하
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어서 추산되는 교수필요는 시간강사들이 담당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교육개설과 시간강사들에게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 하는 비
율은 대학마다 다를 뿐 아니라 학과분야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평균값은 교육개설과 시간의 약 30%를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값은 대학의 교육, 난성, 일베
로 각각의 교육개설과 시간 강사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강사에 대한 교육수지를 외부의 교육수율에 포함하여
교수필요로 추산할 수 있다.

5) 직무분석

강의시간은 교육원의 직무를 분석하려 교육필요를 추산하는 것이다.
강의시간은 교육원에 필요한 교육수를 얻기한다. 그러나 교육원의 직무
시간과 강의시간은 교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교육원의
연구, 학생들의 교육지도, 과정 등이 있다. 강의시간은 이러한 직무를 고려하지 않는다.
강의시간으로는 교육필요를 계산할 때 교육수를 얻기한다. 반면에
이 방법은 교육강의의 교육수를 추산하는 외에 낮은 시간으로 간을
직무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서 설립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교육수를 단순한 기준으
로 정확한 관측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지
니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수
을 낮게 추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직무수산 방법은 가능한 한
교수의 직무
제로 분석하여 각 종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수 인력 수요를 확정하는 것이다.

(1) 강의

강의는 교수의 학생원 있는 책임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 강의에는 순수한 강의, 실력-실습의 지도, 실습지도, 세미나, 주관 등이 포함된다.

(2) 연구

연구는 교수의 종에서 강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교수에게는 특히 과학적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이 연구에는 그간의 연구 결과, 도출한 연구 개발 새로운 지식의 실용적 연구, 교수법 및 교재 개발 등이 포함된다.

(3) 논문으로

학생들의 논문이 진행 중일 때 연구명 attendant 보조자가 임시적으로 도와주는 연구로, 도달한 교수의 지지한 지도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따라서 교수들의 논문으로 독립한 보조자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독립적인 논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전문학적인 정서 수 행하고 있으나, 교육의 논문으로는 학부의 경우 4학년 때, 학사의 경우 대학 1년제, 보통의 경우에는 3년제에 이루어진다.

(4) 행정

행정은 교수들의 본인의 직무로 그리 별 수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직무로, 연구의 하나로서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업무로서는 각종 회의, 박람회, 학생 생활 지도 등이 들 수 있다.

(5) 사회로

교수는 전문 지식을 종용 사회에 전달하는 포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포괄적 사회로의 업무를 무시할 수 있다.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한 흥미, 대중 대상의 연설 등이

1) 박성기, 박문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 인력 수요추정」(미구한 연구보고서, 1983) 참조.
이에 포함된다.

다시서 위의 다섯 가지 법률을 준행하는 데, 필요 한, 적당, 적절한 시간을 구하고, 교육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적당, 적절한 시간을 계산하여, 교수수를 산출할 수 있다. 각 교수들이 이러한 법률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시간을 추정한다는 것은, 개인차, 대학의, 입학,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런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

II. 교수력에의 實態 및 定員基準의 妥當性

1. 教授確保狀況

우리나라 四年制 大学(校)들의 平均 教授 對 學生比 推移를 보면, 60年代 60년대 중, 70年代中 사이에 약간 改善되는 경향을 보였을 뿐, 계속해서 惡化되는 추세에 있다. 즉 1965년에, 教授 1人當 19.3名이던 것이 1970년에는 18.8 名으로 약간 改善되었으나, 그후 1975년에 20.7名, 1980년에 27.9名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1학年度부터, 主要定員制を 実施하면서, 學生 수가, 急増한 반面, 教授의 確保가 달성되지 못하여, 教授 對 學生比는 1985年 現저 1:33.3名까지 늘어졌다.10)

주의할 점은, 教授 1人當 學生數는 주요, 先進國에 비하도, 교수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아래 表에서 보면, 主要, 國家들의 教授 1人當 學生數는, 대체로 10名 이내의, 現況을 보이고 있다. 教授 1人當 學生數가, 비교적 많은, 美國도, 우리보다 약 10名이 적은, 24.7名으로 나타났다.

〈表1〉 主要國의 教授 1人當 學生數

<table>
<thead>
<tr>
<th>國名</th>
<th>年度</th>
<th>教授 1人當 學生數</th>
<th>國名</th>
<th>年度</th>
<th>教授 1人當 學生數</th>
</tr>
</thead>
<tbody>
<tr>
<td>美國</td>
<td>1981</td>
<td>24.75</td>
<td>日本</td>
<td>1982</td>
<td>10.76</td>
</tr>
<tr>
<td>佛蘭西</td>
<td>1975</td>
<td>20.03</td>
<td>韓國</td>
<td>1984</td>
<td>33.27</td>
</tr>
</tbody>
</table>


10)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5年度 大學機關評價 研究報告書」 참조.
대학의 규모와 설립에 따른 비교적야 의하던, 교수 1인당 학생수의 경우
는,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국립대학의 교수의 경우
종합대학보다 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 10여 명 이상이
2년과 3년으로 나타났다. 종합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5.51
神学大学
도, 25.51이었다. 환권 1인당 학교의 수에는 종합대학과 단과
대학 모두 국립대학이 종합대학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공 교원의.getSessionEndpoint로 하였을 때,
教授 1인당 학생수는 약 23명이다. 이에 비해면 교수 1인당 학생수의 대학
평균 33.59이다. 종합대학보다, 약 10명의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서, 교
授의 확보정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教授 확보율을 비교할 수 표시 교원수/법정수의 경제를 계산하고, 이 지표에 의
하여 전국 108개 대학(교)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보면 평균 67.9%로 그 충원
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원은의 정비도 실제 개선되어야 할 필요로 있지만, 이것이 합리된다고
주제하고 해도 교원의 확보가 2/3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教授·학습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임교수 확
보율에서 대학 사이의 변동은 11%~240%여 이르고 있어서, 어떤 곳은
11%까지 확보되지 못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240%까지(대개
의 경우)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지표의 상행성을
율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 敎授의 勤務負擔

教授活動分析( Faculty Activity Analysis: F.A.A.)은 敎授들의
業務量을測定하여, 報酬策定의 基準을 정하기나, 新規採用의必要性을
判斷하는 등 大學의 全般的인 企画 및 管理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얻기 위해서
實施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筆者가 1985년에 조사한 敎授活動分析
結果를 토대로 우리나라 大學教授들의 內科부담과 그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同 研究에서
教授活動은 日課時間 (平日 9~18時, 土曜日 9~13時) 內의 活動量을 對象으

11)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教育施設의 適正基準에 관한 研究」(1985), pp. 57~77
참조.
로 하고, 밤에 일간에 기록된 자료의 연구 시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調査對象은 33개 대학(校)에 標本으로 선정하여 총 2,450명의 教授들에 分析表를 配布하였으며 그 중 약 76%인 1,863명가 최중되어 不誠實한 것을 제외한 1,754명가 處理되었다.

教授들의 일주일 동안의 活動을 크게 ① 授業(講義・實験・実習)에 관련된 活動 ② 研究에 관련된 活動 ③ 授業, 研究 이외의 活動 ④ 社會奉仕活動 ⑤ 其他活動으로 나누어 각각의 活動을 다시 細分하였다. 즉 授業(講義・實験・實習)에 관련된 活動을 授業時間,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時間, 授業時間外 学習指導時間, 他大學 出講時間 等으로 나누고 研究에 관련된 活動을 特定 프로젝트 研究의 個人學術 研究로, 授業・研究 이외의 活動을 學生指導, 行政業務, 會議參席 等으로 細分하였다. 기타 活動은 日課時間 내에 위치한 提示한 活動에 包含시키기 어려운 活動과 我々가 豫想하지 못하였던 活動들을 구체적으로 記入하게 하였다.

教授들의 일주일 동안的 日課時間(約 44時間) 構成을 살펴보면 授業에 관련된 活動이 59%, 研究에 관련된 活動이 24%, 學生指導・行政業務 等 授業 研究 이외의 活動이 15%, 社會奉仕 및 其他 活動이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教授活動時間은 系列別로 나누어 分析한 것이 (表 2)이다. 授業에 관련된 活動은 系列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않으나 醫學系, 社會科學系, 教育 및 教職系, 教育(人文)系, 語文學系 等이 標本으로 抽出된 全體教授의 授業時間에 비해 授業에 관련된 活動에 相對的으로 적은 시간을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醫學系의 경우 全體 活動時間 중 授業에 관련된 活動은 48% 정도에 그치고 있어 授業과 研究를 與行하고 있는 醫學系列의 特殊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 授業에 관련된 活動에 비교적 많은 時間을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系列로는 教育(自然)系, 水・海洋系, 工業系, 人文科學系, 教育(藝・體能)系 등이다.

研究에 관련된 活動의 경우에는 醫學系, 教養 및 教職系, 水・海洋系, 藥學系 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教育(自然)系, 教育(藝・體能)系, 藝・體能系, 社會科學系 等이 相對的으로 적은 時間을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table>
<thead>
<tr>
<th>系列別</th>
<th>教授活動時間</th>
<th>核算表</th>
<th>1人當</th>
<th>時間數</th>
</tr>
</thead>
<tbody>
<tr>
<td></td>
<td>標本數</td>
<td>授業</td>
<td>研究</td>
<td>授業・研究外</td>
</tr>
<tr>
<td>社會科學系</td>
<td>292</td>
<td>57</td>
<td>22</td>
<td>17</td>
</tr>
<tr>
<td>藝文學系</td>
<td>232</td>
<td>58</td>
<td>25</td>
<td>14</td>
</tr>
<tr>
<td>人・體能系</td>
<td>205</td>
<td>59</td>
<td>22</td>
<td>15</td>
</tr>
<tr>
<td>人文学系</td>
<td>102</td>
<td>61</td>
<td>23</td>
<td>14</td>
</tr>
<tr>
<td>教育(人・文)系</td>
<td>67</td>
<td>58</td>
<td>24</td>
<td>15</td>
</tr>
<tr>
<td>教育(藝・體能)系</td>
<td>15</td>
<td>60</td>
<td>21</td>
<td>17</td>
</tr>
<tr>
<td>教養及教職系</td>
<td>18</td>
<td>57</td>
<td>29</td>
<td>12</td>
</tr>
<tr>
<td>進學系</td>
<td>308</td>
<td>59</td>
<td>24</td>
<td>14</td>
</tr>
<tr>
<td>医学系</td>
<td>285</td>
<td>61</td>
<td>23</td>
<td>13</td>
</tr>
<tr>
<td>理学系</td>
<td>109</td>
<td>48</td>
<td>32</td>
<td>13</td>
</tr>
<tr>
<td>农学系</td>
<td>83</td>
<td>58</td>
<td>25</td>
<td>14</td>
</tr>
<tr>
<td>营業系</td>
<td>58</td>
<td>58</td>
<td>27</td>
<td>12</td>
</tr>
<tr>
<td>教育(自然)系</td>
<td>18</td>
<td>64</td>
<td>21</td>
<td>15</td>
</tr>
<tr>
<td>人・海洋系</td>
<td>2</td>
<td>61</td>
<td>27</td>
<td>9</td>
</tr>
<tr>
<td>計</td>
<td>1,794</td>
<td>59</td>
<td>24</td>
<td>15</td>
</tr>
</tbody>
</table>

學生指導・行政業務・講義参加等を意味する授業・研究以外の活動の減少は、社会科学系を除く人文・社会科学系（語文系、芸術・体能系、人文科学系、教育系等）が工業系を除く自然科学系（理学系、農学系、薬学系等）のよりも2〜3%低めに処理され、社会奉仕の他の活動の増加は全体的に教授活動の2〜3%を減らし、また医学系の場合、他の活動が5%増加した。授業・研究以外の活動を含む授業活動の時間数は、授業活動に占める割合が21.6%であるが、授業活動だけで占める割合は14.1%である。これにより、授業・研究以外の活動の時間数は、授業活動の時間数より若干低めに算出された。
활동 1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授活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約 60%) 授業에 관련된
活動은 다시 校内 授業時間,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時間, 授業時間外 學習指導
時間, 他大學 出講時間으로 나누어 分析할 수 있다. 此外 ）教科研究 및
評價處理에는 教授들의 授業準備, 授業에 관한 研究, 學生들의 授業評價 等
이 포함되고, 授業時間外 學習指導에는 學生들의 論文指導, 授業과 관련된
面談, 討議 等의 時間이 포함된다.

大學別 授業에 관련된 活動時間의 比率 및 教授 1人當 時間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校内 正規授業이 全體 授業의 授業에 관련된 活動中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大學別・類型別로 특기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教科研究 및 評價處理 時間數가 차지하는 比率은 39% 정도이며 論文指導, 授業
과 관련된 面談, 討議 等을 의미하는 授業時間外 學習指導에 投入하는
時間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他大學 出講時間 比率이 全體 授業에 관련된
活動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大部分의 大学에서 2～3%에 이르고 있다.

大學別 授業活動中에 教授 1人當 校内 授業時間數を 보면 適當 12.8
時間 정도의 校内授業을 擔當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授業 1人당 教科
研究 및 評價處理 時間數는 平均 11.2時間を 차지하고 있어 大部分의 授業
들이 하루 두 시간 이상을 投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授業・研究外의 學習指導와 他大學 出講은 全體 授業들의 平均이 각각 3.9
時間, 0.6時間を 차지하고 있으며 大學別로 둔경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授業과 관련된 活動은 系列別로 제시한 것이 (表 3)이다. 授業과 관련된
活動 중에서 校内 正規授業이 차지하는 比率은 人文科學系, 教育(藝・體能)
系, 農林系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他 系列에서는 比較의 높게 나타나고
있다.

教科研究 및 評價處理時間의 比率은 人文科學系, 社會科學系, 教育(人文)
系가 높게 나타나고, 藝・體能系, 醫學系, 教育(藝・體能)系, 教養 및 教職
系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人文社會科學系列의 授業들이 他 系列의
教授들에 비해서 授業準備 및 研究, 評價處理에 비교적 高い 比率의 時間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다.

授業時間外 學習指導는 藝・體能系(教育系列 中 藝・體能系 포함)가 단연
表 3  系列別 授業関連活動

<table>
<thead>
<tr>
<th>系列</th>
<th>列</th>
<th>標本数</th>
<th>時間</th>
<th>教材研究</th>
<th>指導</th>
<th>小計</th>
<th>他大学</th>
<th>教授 1人当</th>
<th>時間</th>
</tr>
</thead>
<tbody>
<tr>
<td>社会科学系</td>
<td>292</td>
<td>42</td>
<td>42</td>
<td>14</td>
<td>97</td>
<td>3</td>
<td>11.7</td>
<td>11.7</td>
<td>3.9</td>
</tr>
<tr>
<td>語文科学系</td>
<td>232</td>
<td>44</td>
<td>41</td>
<td>13</td>
<td>97</td>
<td>3</td>
<td>11.9</td>
<td>11.2</td>
<td>3.5</td>
</tr>
<tr>
<td>教育 (人文)系</td>
<td>205</td>
<td>52</td>
<td>29</td>
<td>16</td>
<td>96</td>
<td>4</td>
<td>15.2</td>
<td>8.6</td>
<td>4.6</td>
</tr>
<tr>
<td>人文学系</td>
<td>102</td>
<td>41</td>
<td>44</td>
<td>13</td>
<td>99</td>
<td>1</td>
<td>12.4</td>
<td>13.2</td>
<td>3.9</td>
</tr>
<tr>
<td>教育 (自然)系</td>
<td>67</td>
<td>43</td>
<td>42</td>
<td>14</td>
<td>98</td>
<td>1</td>
<td>11.4</td>
<td>11.1</td>
<td>3.8</td>
</tr>
<tr>
<td>教育 (人文)系</td>
<td>15</td>
<td>41</td>
<td>36</td>
<td>22</td>
<td>98</td>
<td>2</td>
<td>12.3</td>
<td>10.7</td>
<td>6.5</td>
</tr>
<tr>
<td>藝術系</td>
<td>18</td>
<td>51</td>
<td>36</td>
<td>11</td>
<td>98</td>
<td>2</td>
<td>13.3</td>
<td>9.3</td>
<td>2.8</td>
</tr>
<tr>
<td>医学系</td>
<td>308</td>
<td>44</td>
<td>42</td>
<td>12</td>
<td>98</td>
<td>2</td>
<td>13.3</td>
<td>12.8</td>
<td>4.0</td>
</tr>
<tr>
<td>工学系</td>
<td>285</td>
<td>47</td>
<td>38</td>
<td>13</td>
<td>98</td>
<td>2</td>
<td>13.9</td>
<td>11.2</td>
<td>3.8</td>
</tr>
<tr>
<td>芸术系</td>
<td>109</td>
<td>49</td>
<td>36</td>
<td>13</td>
<td>98</td>
<td>2</td>
<td>11.3</td>
<td>8.3</td>
<td>3.1</td>
</tr>
<tr>
<td>人文科学系</td>
<td>83</td>
<td>41</td>
<td>41</td>
<td>15</td>
<td>97</td>
<td>3</td>
<td>12.2</td>
<td>12.3</td>
<td>4.4</td>
</tr>
<tr>
<td>芸术系</td>
<td>58</td>
<td>47</td>
<td>39</td>
<td>13</td>
<td>99</td>
<td>1</td>
<td>13.3</td>
<td>11.2</td>
<td>3.8</td>
</tr>
<tr>
<td>教育 (自然)系</td>
<td>18</td>
<td>49</td>
<td>37</td>
<td>13</td>
<td>99</td>
<td>1</td>
<td>14.2</td>
<td>10.8</td>
<td>3.6</td>
</tr>
<tr>
<td>水・海洋系</td>
<td>2</td>
<td>45</td>
<td>45</td>
<td>10</td>
<td>100</td>
<td>-</td>
<td>14.0</td>
<td>14.0</td>
<td>3.0</td>
</tr>
<tr>
<td>計</td>
<td>1,794</td>
<td>45</td>
<td>39</td>
<td>14</td>
<td>98</td>
<td>2</td>
<td>12.9</td>
<td>11.2</td>
<td>3.9</td>
</tr>
</tbody>
</table>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水・海洋系를 제외한 대부분의 系列이 13〜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他大學 出講의 경우도 系列別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藝・體能系를 제외하고는 2% 내외에 그치고 있다.

系列别 授業関連活動의 教授 1人当 時間을 살펴보면 校内 正規授業에 投入되는 番率数가 많은 系列이 藝・體能系, 教育 (自然)系, 水・海洋系, 工学系 等이며, 人文社会科学系列의 教授들은 醫學系를 제외한 自然科學系列의 教授들도나 校内 正規授業에 투입하는 時間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教材研究 및 評価處理 時間数を 보면 藝・體能系 (教育系 中 藝・體能系 포함)와 醫學系, 水・海洋系를 제외하고는 10〜12時間 정도 投入하고 있으며 大半 人文科学系 教授들의 경우 13.2時間을 투입하고 있어서 다른系列의 教授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授業時間外의 学習指導의 경우에도 藝・體能系를 제외하고는 3〜4時間 外에서 거의 비슷한 時間数を 나타내고 있으며 他大學 出講도 系列間의 큰 차이 없이 0.5時間 内外에 그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의 전체 교육과 시간 중에서 연구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로 선정된 1,794명의 교수들은 평균 11시간 정도를 연구에 기울이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정 프로젝트 연구는 21%, 개인학술연구가 79%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별로 특정 프로젝트 연구와 개인학술연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농림系, 의학系, 경제学系, 경영学系, 언어文学系, 교육系, 인문科学系 등은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학술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현행기준의妥當性

대학교의 재정 외의 학계 단위로 일정수를 확보하도록 레이스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公•私立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과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9인 이상 떠치라" 교수와 부교수는 4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2) 대학의 규정에 따르면 학과 및 학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3)

① 학과에 소속된 학과의 160명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2학과까지는 교육법 시행령 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학과인 경우에는 26명 이상, 4학과인 경우에는 33명 이상, 5학과인 경우에는 39명 이상으로 하고, 5학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과마다 5인식을 더한다.

② 학과에 소속된 학과의 16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호에 의한 교원의 40명 이상으로 1인식을 더한다.

③ 자원과학에 각 학과에 있어서는 4명 이상, 교육 및 문화계 각 학과에 있어서는 3명 이상, 경영•数학•地理•歴史•기타 이에 편하는 각 학과에 있어서는 2명 이상을 각각 더한다.

이란에 대학의 시설기준에 의한 학과의 교원의 만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6조 6조는 3분의 1을 초과하기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1인을 실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제45조 1항
13) 제3조 6조
따라서 각 대학(교)의 교수정원은 이상의 수용기준에 따라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정원수에 비추어 각 대학(교)의 합과는 고려하였다는 논의를 통해 학과의 수용률은 교육처의 요구하는 정원의 50%에도 못 달아진다. 대체로, 의과대, 국방대, 농과대학 등은 정원의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내의 몇몇 대학들은 정원의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다는 점이다. 정원에 따라 정원의 수용률이 50%에도 못 달아진다. 대학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수정원의 적자는 각 대학(교)의 재정상태 등에 다른 대학과 주로 기반하는 것이지만 정원기준에 따라 정원을 재정할 당시에는 그 대학의 재정의 기반을 평가하는 것이고 정원기준은 재정의 기반이며 정원의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단순한 정의로 변한 것이며, 정원의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원이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필요성이나 정원의 적자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제는, 학과, 학과 직원 또는 학과 관리기준의 변동에 따른 정원의 변동은 학과 정원의 증가에 따라 학과 정원의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 음직임에 따라 정원의 정원을 증가하고 있는 정원을 초과한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정원은 약간 고려하고 있는 단순한 정원의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원이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필요성이나 정원의 적자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인문사회계와 자연과학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의약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류 등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제한적인 차이가 있다. 이들 계열에는 능력과 실적의 비율, 시간에 따른 연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학과별로 교수선정을 제한하고 있는 데서 오는 학과의 갈등과 학과간의 결합의 문제점으로 저자정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교(校)의 경우는 학과를 특별히 자동차와 직접 교수의 존재가 수반되므로 학과질정정을 축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과간의 장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수선정은 객관적이여서 대학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다. 즉 「학과 12장 9학과의 교수가 배치된다」는 기본에서 학과는 학과간의 학문의 균형을 가약적으로 대학간의 학과는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전문교수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의 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학과간의 교육에 합부여와 안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수학대학교(校)의 경우 대학원의 강의는 전문시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교육과 비슷한 추가적인 부담정도를 갖추고 있다. 현행 교육은 특별히 학과에 대한 학과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것이다.

IV. 교수선정을 위한 모형

1. 기본적전

現行 교수선정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수선정기준은 대학의 교육실적화를 환경하고 대학간의 균형성을 교육과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보다 적절한 교육적 기준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학과간의 충분한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교수선정에 있어 기초로 삼아야 할 전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教育課程을 基準으로 한 接近方法과 模型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理論的 背景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教授需要를 실현하는 데는 教授과 學生의 관점에 의한 接近方法과 職務分析에 의한 微視的 接近方法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前者が 지나치게 간략화하기 어렵고 後者は理論적으로는 가능하지만 實際로는 技術的 綱領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教授의 勤務負擔을 줄이는 의미의 教育活動에 국한시키 教育課程을 충실히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適正規模의 教授教員의 定員基準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教授需要 算出模型에서는 教育活動과 관련된複合的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겠다. 現行 基準에서는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學科 數 副次의 인 요인으로 學生収가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實際적으로 大学에서의 教授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教育課程의 定型을 비롯하여 講座規模, 教授의 責任講義時間 等 여러가지가 있다. 물론 관련되는 모든 要因들은 模型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핵심의 要因들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教授의 定員은 現行처럼 學科別로 책정하기보다는 系列別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定員을 學科別로 책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은 前 師生 檢討 부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거나의 教育課程 운영의 廣域화를 추구하고 學科間의 장벽을 제거하고 學科新設을 위한 경쟁적인 努力を 止揚하 도록 하기 위해서도 系列別 教授定員의 책정이 바람직하며 한 경우 다른 사항에서 교수의 所屬까지도 경제적으로는 系列別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行 大學施設・設備基準은 系列別 學生 數을 異도로 설정되어 있으나 學生定員도 系列別로 책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教授定員基準 改善을 계기로 하여 定員策定単位를 系列別 하여 総定員의 범위 내에서는 各 大學들이 興行상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教授定員策定에 있어서는 당연히 大學院의 教育課程 운영에 필요한 教授需要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의 기준은 學科별 단위로 하면서도 大學院의 학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大學院 教育을 學士課程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교수확보가 필요없다는 識識을 갖게 하고 있다.
대학원에 專任教授를 두도록 義務화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大學院 教育에 필요한 만큼의 專任教授定員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大學院 課程은 별도로 다루어 題正規模의 教授需要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接近方法과 變數選定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基本的인 接近方法은 適當 開設되는 總授業時間에 비추어 專任教授 및 사망이 必要한지를 算出해 내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履修學點數와 開設講座數, 講義와 實驗間의 比率, 教授의 適當 講義責任 時間數, 講座規模 等의 變因이 고려되어야 한다.

履修時間數는 實驗大學體制下에서 學業에 필요한 學點이 140學點으로 規定되어 있으나 適當 履修時間數는 專攻系列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로한 資料는 각 大學(校)의 學科別 教科課程 및 實驗編成 時間表을 分析하면 比較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의 경우에는 規程上的 履修時間數와 實際로 開設된 講座의 授業時間數가 一致하지 않는다. 受講人員이 많아 分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總授業時間數에는 分班에 따른 開設講座의 增加가 감안되어야 한다.

수용에 授業時間에는 講義時間뿐 아니라 實驗時間도 포함된다. 各 大學에서의 講義는 1時間에 1學點을 주는 反面에 實驗은 2時間에 1學點을 주고 있다. 그러나 藝體能系 學科나 醫學系 學科는 이러한 原則에 適応할 인생을 얻는 경우가 많다. 施設所有의 경우에는 學點數보다 實際로 空間을 占有하는 講義 및 實驗的 總時間數가 중요하다. 그러나 教授需要를 算出할때 여기서는 教授들의 適當 授業責任時間이 講義를 기준으로 정정되어 있기 때문에 學點計算方式을 적용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教育法 施行令 第108條에 의하면 大學教授의 講義責任時間은 適當 9時間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大學에 따라서는 內規로 責任時間은 10時間으로 規定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總教授需要를 算出하려면 適當 開設되는 講座의 總學點數를 教授의 責任時間(學點)으로 除하여 산출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여기서 산출되는 總教授需要는 時間講師들이 担當하는 部分까지를 包含한 것이다. 總講座時間 중에서 時間講師들에 어 느정도 依存하느냐 하는 比率
온 대학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의 평균값은 그 총고찰 시간의 약 30%를 시간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값은 대학의 ��학과, 계열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시간교사에 대한 자원을 
중심으로 향후 교육과의 연계를 사출할 수 있게 된다.

①) 학생수와 정당 수강시간수

교육과정 분석에서 계산되는 정당 총학생수는 학교 교육과는 수강시간(W. C.H)의 수를 교육과 교육의 수강시간을 계산한다. 이때 정당 총학생수(W. C. T)는 학생수와 학생수에 대해 수강시간을 계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특별한 교육과, 학과간의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수학,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정당 총학생수를 학교 교육과의 수강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졸업규모

정당 총학생수는 수강시간을 학기 수에 계산하여 졸업수를 학기별로 계산하여야 할 졸업수에 가장 평균 졸업수의 학과 수강시간을 계산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직업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 수학과 학과 수강시간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60~70명, 사학계열과 교육계열 그리고 자연계열은 50명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무의 경우는 대체로 5학의 수강 과정으로 하였으며 대학의 졸업규모는 보통 1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③) 시간 교사 수원도

간 대학에서 개설해야 하는 총고찰 시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전문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교사 조교수로 총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한 전공부문의 전문교사가 담당하는 것보다 교과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문교사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교육과 시간教사 수원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뿐 아니라 타당한 측면도 있다.
시간형태에 依存하는 정도를 延人員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專任教授가 過當 擔當하는 時間 수에 비해서 時間 講師는 훨씬 적은 시간을 擔當하고 있기 때문이다. 時間講師들 중 大部分을 한 사람이 過當 한 講座를 擔當하고 있지만 大学에 따라 2~3 講座를 擔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率은 延人員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전체 開設講座 時間 수 중에서 時間講師가 擔当하는 時間数의 비중을 比較하는 것이 合理의 일 것이다.

一般적으로 봐 外 在時間講師에 대한 依存度는 大学(校)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中位値(median)는 대체로 30% 내외라고 할 수 있겠 다. 그러나 時間講師 依存度는 地域間・大學間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學間系列間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人文大와 師大는 基礎課程과 教養課程의 많은 講座를 時間講師가 맡고 있으며 聞大와 美大에서는 教授 對 學士의 1對1 實技教育を 時間講師가 擔当하고 있기 때문이다. 時間講師依存 度가 가장 높은 系列은 藝・體能系列이며 가장 낮은 系列은 醫藥學系이다.

(1) 專任教授的 過當 擔當時間

專任教授가 過當 講義(實驗包含)을 몇 시간 擔當하여야 하는가는 教授所要時間에 있어 중요한 變數가 된다. 過當 開設해야 할 講座時間数가 一定하 더 1名 教授 1人當 擔當時間数의 증감에 따라 教授所要가 현저하게 달라지 기 때문이다.

教授法 施行令에 규정된 大学(校) 專任教授들의 過當 講義責任時間은 9시간이다. 그러나 時間수의 大学(校)에서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責任時間로 1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全國 大学(校)에 대한 評価資料에 의하면 専任教授 1人當 過當時間 최고평균時間数は 12.2時間으로 集計되었다.

또한 教授들의 過當 수업시간은 學問系列別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다. 가장 負擔이 많은 系列는 藝・體能系列이며 가장 負擔이 적은 系列은 醫学系이다. 一般적인 경향은 人文・社會系의 教授들이 대체로 12時間 내외의 健身을 擔當하는데 自然系 教授들의 경우는 農林系를 제외하고는 大部分 13시간 이상을 擔當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自然系 教授들의 경우 實技實習을 擔当中에 때문에 강의책임시간은 갈인터넷 실제 수업담당시간은 더 많은 예시 기대한다고 보여진다.
3. 算出模型과 定員基準

이상에서 살펴 본 教授需要算出의 接近方法과 變數들은 구체적인 算出模型으로 종합된 필요가 있다. 실제로 教授定員을 策定하는 基準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算出公式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적용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本研究에서 제작한 教授需要 算出의 基本模型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text{專任教授數} = \frac{\text{學生數} \times \text{適當受講時間數}}{\text{講座當 學生數}} \times \frac{\text{專任教授依存度}}{\text{講授當 適當授業時間數}}
\]

이러한 基本模型에 따라 特定한 學生數 규모의 大學(校)이 필요로 하는 教授數를 어려지 않게 算出할 수 있다. 예컨대 學生數 3,000名 规모의 大學에 20 학생들의 適當受講時間數가 20時間，講座當 學生數가 30名으로 간주 하니 専任教授가 全體時間의 70%를 담당하고 教授의 適當 責任時間을 10시간으로 設定한다면 教授需要는 다음과 같이 算出된다.

\[
\text{專任教授數} = \frac{3,000 \times 20}{30} \times \frac{0.7}{10} = \frac{42,000}{300} = 140
\]

이와같은 基本模型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系列別로 세분해서 各 系列別의 教授需要를 算出하여 合算할 수 있을 것이며 受講時間 및 講座當 學生數: 學部와 大學院，實驗과 講義로 구분해서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다.

 경우에 系列別 教授需要算出模型은 다음과 같이 提示된다.

\[
P = \left[ \frac{S_U \cdot W_L}{C_{UL}} + \frac{S_U \cdot W_E}{C_{UE}} \right] \times F_U + \left( \frac{S_g \cdot W_E}{C_g} \right) \times F_g
\]

\[
P = \text{專任教授所要，} \quad S = \text{學生數，} \quad W = \text{適當 學生受講時間數}
\]

\[
C = \text{講座當 學生數，} \quad F = \text{專任教授依存度，} \quad t = \text{教授當 適當授業時間數}
\]

添字: U=學部，g=大學院，L=實驗，E=講義
진 모델은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위에서 제시한 기본 모델과 같은 성격의 것이며 각 계열에 따라 각 변인들의 값을 달리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산출된 계열별 교수 필요는 합산되어 대학별 총 교수 필요(\(TP\))가 계산된다.

\[ TP = \sum_{i=1}^{n} P_i \]

이러한 모델들은 그 자체로 교수정원 산출의 기준 내지 공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포함된 변인들의 값은 현황분석에서 파악된 값을 약간 상향 조정하여 적정하거나, 여리개의 수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변인들의 값은 각 대학의 교육업무 정상 분야별로, 교육업무 정상 총에서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본 모델의 장점 중의 하나로 하겠다. 각 대학(교)의 교사정원은 행정당국에서 총정원의 중간부분을, 학교 측이 평가하더라도 관련 변인들의 기준을 계산해 줄으므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로 삼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 역시 본 모델의 장점에 속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대규모 대학일수록 교사정원이 적절하기 때문에 본 모델 내지 정원기준에서는 단순한 예를 비례해서 본 모델 내지 정원기준에서는 단순한 예를 비례해서 교사정원이 늘어날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정원의 향상 특성은 변형됨으로써 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생비율가 높을수록 교사정원 적절하게 확보하기도 무방한 현재의 기준이 파악 바람직하기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한다.

V. 结 語

대학 교육需需의 推定에는 이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变因들이 관련되며 推定을 위한 接近方法도 多様하다. 지금까지 大学教授의 確保에 관한 適正 基準을 설정하고 그 需要를 算出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概括的이고 단순한 方式에 依存하였으며 우리의 大学運營 風土 역시 과학적인 教職員 人力 需要 管理에 소홀하였음은 否認할 수 없다. 앞으로는 教授의 定員基準 자체
부터 현재처럼 법습으로 통제하는 성적을 상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대학들
으로 자율적인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 데, 중
정와들이 남은 수 있는 안정한 근거를 가진 기준의 제시가 절실히 요청되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적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교수들의 평가 필요성의 추정모형과 구체
적치 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자율적이고 실질적이며 교수들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각 대학들이 관계요인
들의 역할을 개선하는 데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